

직영사찰 봉은사 선본사 보문사 주지 임명

〈원학스님〉 〈성본스님〉 〈등목스님〉

불교중앙박물관에는 덕문스님 한국문화연구원장 비구니 구과스님

봉은사 관리인에 원학스님, 선본사 관리인에 성본스님, 보문사 관리인에 등목스님이 임명됐다. 또 불교중앙박물관장에 덕문스님, 한국문화연구원장에 비구니 구과스님이 새로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일 직영사찰 3곳의 신임 관리인과 불교중앙박물관장 및 한국문화연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은사는 조계사와 함께 종단이 추진하고 있는 결사에 역점을 두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구니 스님으로

서는 최초로 한국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구과스님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원장 소임을 맡았다. 비구니 스님 특유의 정서를 살려 연수원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봉은사 관리인 원학스님은 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5년 파계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1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총무부장, 문화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을 역임했다.

선본사 관리인 성본스님은 해인스



원학스님 성본스님 등목스님 덕문스님 구과스님

님을 은사로 1991년 해인사에서 법전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0년 송광사에서 범봉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하양포교당 주지를 역임했다.

보문사 관리인 등목스님은 근일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해인사에서 해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99년 직지사서에서 정하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부

석사 봉황선원, 덕송총림선원, 조계총림선원, 고불총림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대곡사, 법륜사 주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덕문스님은 종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5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19

교구본사 화엄사 기획국장, 선본사, 보문사, 도솔암 주지 및 원로회의 사무처장, 제13, 14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15년째 조암불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문화연구원장 구과스님은 원광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석남사 정수선원, 백흥암선원, 내원사 동국제일선원 등에서 정진했으며, 현재 중앙종회의원이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총무원장 투표권 확대해야”

성낙인 교수, 총회연수서 “총사급 비구니스님까지”



조계종 중앙종회가 개최한 총회 의원 연수 강사로 나선 서울대 법학대학 성낙인 교수(사진)가 총무원장 선출방식을 놓고 총무원장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승남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와 비구니 스님까지 선거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낙인 교수는 지난 5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항적스님)이 종단에서 임명을 담당하는 총회위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 개최한 중앙종회 연수에서 ‘종원총법과 선거법 체계’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성 교수는 현행 종단 총무원장 선거법에서 중앙종회의원 외 각 교구에서 10명의 유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나 방식에 대해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톨릭의 교황 선출방식을 언급하며 “중앙종회는 평상시 대의기구로 역할을 하고 총

무원장 선거에 관한 원로 중진 승려들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며 “피선거권 자격을 가진 전국의 스님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직선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비구니 스님의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원로회의에 비구니 스님 참여, 중앙종회 내 비구니 의원 확대, 교구총회의원 선거권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교육원이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중앙종회 차원에서는 처음 마련됐다.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 연수에서는 김홍신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교수가 ‘한국사회와 불교의 역할’에 대해, 허달 SK아카데미 교수가 ‘현대사회와 불교 리더십’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필리핀 태풍피해 돕는 불교계 열기 뜨겁다

고운사·낙산사 기금 전달...천태종 전국순회 모금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 사찰과 불자들이 정성을 보태며 구호기금도 약 2억원 가까이 모금됐다.

제16교구 본·말사들은 한마음으로 필리핀 구호에 정성을 보냈다.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호성스님)는 지난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에 필리핀 구호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고운사가 전달한 기금은 필리핀을 돕기 위해 16교구 본·말사 사찰에서 십시일반으로 마련했다.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은 “작은 금액이나 필리핀 긴급구호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운사에서 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양 낙산사에서도 3000일간의 복원 불사 회향을 기념해 지난 4일 아름다운동행에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기금 500만원을 기부하며 온정을 전했으며, 서울 조계사, 봉은사 등 주요 사찰에서도 경내에 모금함

을 설치하고 구호기금 모금을 실시하고 있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스님)의 동참 열기도 뜨겁다. 천태종은 전국 천태종 사찰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필리핀 지원에 나서고 있다. 천태종은 지난 1일 부산 삼광사에서 총무원장 도정스님, 총무부장 월도스님, 주지 무원스님, 필리핀 출신의 이자스님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피해 돕기 성금모금 대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도정스님은 “필리핀은 지금 엄청난 재난으로 실의에 빠져 있다. 집을 버리고 탈출하는 소년소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며 “우리는 두 개의 손과 두 개의 눈만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천 번 어루만지면 천수 천안 관세음보살이 된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필리핀 국민들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자”고 당부했다. 또 이날 서울 관문사와 대구 대성사에서도 성금모음이 진행됐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울산 정광사에서 성금모금행사를 갖는 등 전국 사찰별로 모금행사를 펼치고 있다.

안직수 임태규 기자



필리핀 태풍 피해 지원을 위한 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제16교구 고운사 본·말사의 구호기금 전달식. 왼쪽부터 아름다운 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고운사 주지 호성스님.

본·말사 주지 인사 (12월4일 중무회의)					
보경스님 총인 무위선원	우학스님 경주 무일선원	성신스님 천안 용회사	삼조스님 인제 백담사	도후스님 양양 낙산사	마근스님 고성 건봉사
정현스님 철원 심원사	정명스님 고성 조계암	임정스님 경주 임정사	원종스님 천안 극락정사	상오스님 상주 동해사	현목스님 김천 백운사
지성스님 대구 법현사	희안스님 경주 굴불사	혜안스님 영주 영정사	청암스님 광주 미하보리사	덕림스님 순천 정혜사	혜산스님 정읍 내장사
혜연스님 울주 선암사	남도스님 대구 보림사	혜득스님 영주 영정사	청암스님 광주 미하보리사	덕림스님 순천 정혜사	혜산스님 정읍 내장사
자현스님 양주 백화암					

대통령 퇴진요구 '시국선언' 광주지역 5대 종교 성직자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등 광주지역 5대 종교 성직자들이 '박근혜 정권 퇴진촉구 시국선언'을 갖고 '종북논란, 국민분열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다. 지난 5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시국선언 남지역본부(부장, 법원스님)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행법스님(광주불교교육원 학장), 법선스님

(문빈정사 주지) 등 지역 사암스님 20여명과 지역 종교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지장스님(동원사 주지)이 낭독한 시국선언문에서 5대 종단은 “지난 18대 대선에 국정원과 국방부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등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당연한 일임에도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거나 조작하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일어난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엽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노동위원회 철도 민영화 '반대'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가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노동위는 성명을 통해 “정권은 한시적이지만 국가 자산인 철도는 영원히 국민과 함께 해야 할 고유 자산”이라며 “민영화에 대항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앞 정권들의 잘못된 민영화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한국통신이 민영화 되고 나서 통신 요금이 더 폭등하게 되고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자살을 낳겠다는 것은 민영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며 “정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철도 민영화 방침은 철회 되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의 기구를 만들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성호스님 취임 2주년기념

관음사 회주 종호큰스님 추대법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초겨울을 맞이하여 대덕스님의 법체청안과 불자여러분의 가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성호스님 취임 2주년을 기념하며, 한국불교와 제주불교 발전에 기여하신 제주관음사 회주 종호큰스님 추대법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불교 발전과 제주지역 포교활동 및 인도중심을 지향하는 관음사로 거듭나기 위해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다짐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자 2013년 12월 16일(월) 18:30

☉ 장 소 제주오리엔탈호텔 한라홀

☉ 문 의 064-724-6830(종무소)
제주시 산록북로 660(아라리동)

| 주회 |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 주관 | 관음사 신도회

